

## 한국어 문자메시지의 표기와 특성: 20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주희\*\*  
(경희대학교)

박선우\*\*\*  
(한신대학교)

**Lee, Juhee, and Park, Sunwoo. 2012. A study of writing styl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text messages: With reference to university students.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8.1, 131-16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stinctive writing styles for text messages that were discussed by Crystal (2008) and examine the use of the languages in Korean text messages. For the data we collected, pictograms, abbreviations, omitted letters, and nonstandard spellings proved to be observable in Korean text messages. The frequency and types of emoticons were greater in English text messages than in Korean ones. Especially, pictograms, such as emoticons, acronyms, and punctuation marks were much more frequently used by females than by males. A difference by gender was also found in message length; generally, messages written by females were longer than those by males, and this result was als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igure. The frequency and types of abbreviations were also greater in English messages than in Korean ones. Omitted letters appeared both in Korean and English text messages in various forms; some reflected the pronunciation of spoken languages, while others did not at all. Nonstandard spellings also appeared both in Korean and English text messages in various forms. Many of them reflected the pronunciation of spoken languages, while others did not at all. Especially, many of them were aimed at economical efficiency, while a number of them were for wordplays or unique expressions. To conclude, Korean text messages have both universal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It is noteworthy that although many text messages contained languages against standard spelling, they were not incomprehensible. According to analysis of collected text messages, nonstandard spellings (syllables) were only 16.6%, which is not a worrying rate considering that 83.4% were in accordance with standard spelling.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public concern that spelling destruction in text messages in other languages as well as Korean has reached a serious level is rather exaggerated. (Kyung Hee University, Hanshin University)

Keywords: cell phone, gender difference, orthography, SMS, text message, writing style

### 1. 머리말

휴대전화의 본래 기능인 음성통화의 사용량은 줄어드는 반면 문자메시지의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중장년 층과 달리 청소년들은 매일 엄청난 양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독특

\* 이 논문은 경희대학교(제1저자)의 학술장려금과 한신대학교(교신저자)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이 논문은 2011년 5월 28일 대전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언어학회와 한국현대언어학회의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한 것이다. 논문의 내용을 심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한 문자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하여 고민해보면 나름대로 몇 가지 해답을 제안할 수 있겠지만 규범주의적 관점을 버리고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전 세계 문자메시지의 사용자들은 몇 가지 변별적 요소들을 결합하여 일반적인 텍스트와 다른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내고 있다. Crystal(2008)은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는 새로운 매체와 통신방법이지만 문자메시지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은 언어학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문자메시지에서 관찰되는 특징은 우리의 조상들이 적은 과거의 문헌에서도 발견되며, 대부분 휴대전화 이전 컴퓨터 통신의 대화방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것들이다. 특히 그림문자와 두문자어 같은 특징들은 컴퓨터가 등장한 시기보다 수백년 이전 혹은 그보다 앞선 과거의 글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고대의 글에서도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자메시지의 특징적 표기법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남녀 성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비교해본다. 필요한 경우 로마자로 표기되는 영어의 메시지와 비교하면서 한국어 문자메시지의 보편적 특징과 개별적 특징을 논의하겠다.

문자메시지를 논의하기 이전에 통신언어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문자메시지에서 보이는 언어적 특징은 컴퓨터 통신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주희(2010)에서는 통신언어의 영역이 인터넷 공간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문자메시지와 같은 휴대전화까지 확대된다고 보았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음성통화 외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과 기능면에서 컴퓨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에서는 컴퓨터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통신 기술까지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sup>1</sup>

학계의 시선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통신언어라는 주제는 늘 논쟁의 대상이었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통신언어라는 주제어를 검색하면 다양한 찬반 의견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나타난 통신언어는 인터넷 언어, 사이버 언어, PC 통신언어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 왔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일컫는 말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으로 ‘통신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통신언어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다양하지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문어와 구어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통신언어는 문자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구어의 특성이 표기법에 반영되어 독특한 형태·음운론적인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완벽한 문어나 구어의 형태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통신언어를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진 하위 범주의 언어로 간주하고 있다. 신승용(2005)에서는 통신언어를 일상의 구어나 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이나 표현을 사용하며 10

<sup>1</sup>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어의 문자메시지 자료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작성된 메시지는 배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어 문자메시지 자료는 모두 휴대전화의 자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대나 20대를 중심으로 통용된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사회 방언의 하위 변종어로 분류하였다. 박철주(2006)에서는 통신언어는 그 생산자가 주로 청소년이며 청소년에게 통신언어를 바람직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정복(2009)에서는 통신언어의 사용층이 청소년이나 20대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세대와 계층으로 확산되었고 그 쓰임도 인터넷 공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영역까지 확장되었다고 논의하였다. 따라서 통신언어는 사회 방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1세기에 등장한 현대 한국어의 새로운 ‘지역 방언’이나 ‘공간적 변이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까지 통신언어에 대한 연구가 많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문법 파괴’나 ‘일탈적 특징’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조어법과 어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시정곤 2006) 음운론적으로는 통신언어의 유형과 기능을 분석하고 기술한 정도이다(전병용 2002, 박철주 2006). 이주희(2010)에서는 통신언어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현상 중에서도 규범이나 일탈이라는 측면보다 음운과 표기의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이정복(2005)를 포함한 이정복의 다른 연구에서는 통신언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외 연구로서 Hård af Segersteg(2002)에서는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소통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살펴보면 국내 연구자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통신언어에 상호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로서 동시성(synchronicity), 표현수단(means of expression), 상황(situation)을 들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채팅과 메신저(Instant Messenger)는 동시적 성격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는 비동시적 성격을 갖는다. 이런 차이가 그 쓰임이나 용법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통사적인 특징, 어휘의 탈락과 변용과 관련된 용법은 궁극적으로 시간, 노력, 공간의 제약 안에서 최대한 표현하기 위한 언어적 변용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대다수의 연구처럼 언어의 일탈과 같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자메시지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어의 용법이나 기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문자메시지의 용법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언어학적으로 이러한 용법의 특징은 무엇이며, 독특한 표기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통신언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문자메시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문자메시지에 대한 연구는 국외의 학자에 의한 서구어의 분석으로서 주로 로마자로 표기된 텍스트에 한정되어 있고 한국어 문자메시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PC통신에서 시작된 통신언어의 용법이 휴대전화기의 자판으로 작성되는 문자메시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표기적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 메시지의 특징들이 언어보편적 현상인지 검증하고, 로마자로 표기되는 메시지와 한글 메시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나

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논의하겠다.

이후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선행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고, 연구방법을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메시지를 수집한 방법을 소개하고 수집된 메시지의 길이, 메시지에 포함된 두문자어, 이모티콘, 비표준적 철자의 빈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문자메시지의 특징적인 표기법을 그림문자와 표의문자, 두문자어, 문자 생략, 비표준적 철자, 단축어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문자메시지의 특성을 언어보편적 특성과 언어개별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문자메시지에 대한 언중들의 평가와 언어학적 분석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 2. 문자메시지의 연구경향

연구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문자메시지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범주는 문자메시지를 인터넷 언어나 통신언어라는 범주 안에서 검토한 논의들이며 둘째 범주는 문자메시지를 독립적인 연구대상으로서 다룬 논의들이다. 국내 연구는 대부분 첫째 범주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문자메시지를 독립적인 연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문자메시지만으로 코퍼스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어의 문자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를 찾기 어렵다. 인터넷 통신언어에 대한 연구가 많으나 문자메시지는 연구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정복(2003)에서는 인터넷 통신언어의 하위 개념으로서 그 범위를 운영자, 게시판, 대화방, 전자편지의 언어로 구분하였다. 송민규(2007)에서는 통신언어의 범위를 네트워크에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따라 언어적 표현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신언어’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국외에서는 인상적 특징을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문자메시지 코퍼스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ård af Segersteg(2002)와 Tagg(2009)는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문자메시지 코퍼스를 구축하고 계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두 논문을 포함하여 국외의 연구들은 주로 철자의 변형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아래 표에 제시된 연구들은 영어를 포함한 유럽의 언어로 작성된 문자메시지 코퍼스를 대상으로 음운과 철자의 변이를 분석하고 있다.

표 1. 문자메시지의 철자변이 연구 주요내용

연구문헌	대상 언어와 메시지 분량	연구 대상과 논의 내용
Döring (2002)	독일어 1,000건	약어와 두문자어.
Hård af Segersteg (2002)	스웨덴어 1,152건	발음이 반영된 표기(=음성 적 철자표기), 구두법의 생 략, 약어의 사용, 자음만을 사용한 표기.
Kasesniemi and Rautianen (2002)	핀란드어 8,000건	문자메시지에 대한 남녀 성 별차, 문법과 구두법의 파괴 로 문자메시지가 남자 아동 의 언어사용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침.
Grinter and Eldridge (2001, 2003)	영어 477건	166건의 어휘를 4가지 유형 으로 분류. ① 표준적인 약어 ② 전통적인 약어 ③ 철자의 생략 ④ 음성적 표기
Thurlow and Brown (2003)	영어 544건	어휘의 단축, 이모티콘과 관 련된 타이포그래피.
Oksman and Turtianen (2004)	핀란드어 8,000건	언어유희와 구어체의 반영.
Faulkner and Culwin (2005)	영어 337건	20대 연령층의 문자메시지 를 연구. 예측 텍스트 기능 의 영향으로 문자메시지의 특이한 용법이 많지 않음.
Tagg (2009)	영어 11,067건	19세부터 68세에 이르는 다 양한 연령층의 문자메시지 를 연구. 문자메시지 코퍼스 를 구축, 철자의 변용과 문 자메시지의 용법 연구, 문자 메시지 언어의 창의성.

연구대상 언어는 다르지만 <표 1>의 논문들은 주로 약어, 철자의 변용과 함께 구어체를 반영한 언어유희적 측면을 조명하였다.

Crystal(2008)은 문자메시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로서 기존의 통신언어 연구에서 문자메시지가 누락되었던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문자메시지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문자메시지의 언어적 특성을 분석하고 여러 언어의 문자메시지 용례도 다루었다. Crystal은 문자메시지에서 나타나는 통신언어의 표현적인 특성과 음운·형태적인 양상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약어나 두문자어처럼 과거에 이미 사용되었으며 어

느 정도의 보편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철자와 사회’(Spelling and Society)라는 Sebba(2007)의 연구서에서는 철자의 변형이 복잡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통해 성립되었다는 사회언어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시 말해 변형된 철자라고 할지라도 나름의 원칙과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언어가 언어와 문법을 파괴한다는 견해는 언론과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문자메시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나 심층적 분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세부적 차이나 개념에 대한 논쟁보다는 통신언어라는 범주의 확대에 주목하고자 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2011년에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인터넷 채팅에서 많이 쓰이는 온라인 약어를 대거 포함하게 되었다.<sup>2</sup> ‘oh my god’ 또는 ‘oh my gosh’의 줄임말인 OMG는 놀라움을 표시할 때 쓰이는 인터넷 용어였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었고 마침내 사전에도 등재되었다. 또한 원래 ‘심장’(heart)을 상징하는 ‘♡’는 ‘사랑한다’(love)는 뜻으로 널리 쓰여 왔지만 기호가 공식단어로 등재된 것은 1884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발간된 이후 12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자메시지가 10대들의 전유물이라는 일부의 편견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2003년 ‘제일기획’의 조사에 의하면 40대의 47% 정도가 문자메시지를 최소한 하루에 한번은 보내거나 받는다고 응답하였다.<sup>3</sup> 거의 10년 전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연령층은 당시보다 확대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010년 <한겨레 21>이 ‘인크루트’(www.incruit.com)에 의뢰해 한국인의 문자메시지 사용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19.4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sup>4</sup> 주목할 점은 이 설문에 참여한 479명의 응답자들이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성인들이라는 사실이다. 문자메시지는 결코 청소년의 전유물이 아니다.

‘SK 텔레콤’에서 2006-2008년 가입자 연령별로 월평균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발송건수는 2006년 1,588건에서 2008년 1,348건으로 15.2% 감소하였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크게 줄었다. 10세 미만은 211건에서 134건으로 36.5% 감소했고, 10대 청소년도 1,023건에서 771건으로 24.6% 줄었다.<sup>5</sup> 반면 2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는 문

<sup>2</sup> 2011.3.26. <연합뉴스> “옥스퍼드 사전, ♡와 OMG 등 단어 등재”.

<sup>3</sup> 제일기획. 2003. <P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특성>.

<sup>4</sup> 2010.11.12. <한겨레 21> “우리는 어찌하다 문자드림에 빠졌나”.

<sup>5</sup> 2009.2.12. <연합뉴스> “문자메시지 이용, 노인↑ 청소년↓”.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글자 수의 제한이 있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 대신 최대 1,000자까지 작성할 수 있고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ultimedia Messaging Service, MMS)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대의 MMS 발송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1월 290만 건에서 12월 450만 건으로 1년 사이 55.2%나 증가하였다.

자메시지 사용이 늘어났다. 연령대별 증가율은 30대가 31.8%(44건→58건)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 27.9%(201건→257건), 40대 19.2%(52건→62건), 50대 16.7%(36건→42건), 60대 9.5%(21건→23건) 순이었다. 60대 이상 노인층은 증가율이 가장 낮았으나 2008년 기준으로 1인당 월 23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문자에 대한 회신이나 수신까지 고려하면 하루에 1건 이상의 문자를 보내거나 받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10대나 20대 엄지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60대 이상의 노인층도 사용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문자메시지는 일반적으로 비동시성(asynchronous)이 강하므로 즉각적인 반응이나 집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노르웨이의 학자인 Ling(2005)의 연구에 따르면 10대와 20대 중반까지 젊은이들이 문자메시지를 많이 이용하며, 이들 가운데 85% 이상은 매일 단문메시지를 보낸다. 반면 67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2.7%만 매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다. 하지만 노년층 이용자 비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문자메시지의 약어는 예상대로 10대와 청년층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다. 하지만 표준 철자법을 따르는 경향은 연령에 비례하지 않았다.<sup>6</sup>

흥미로운 사실은 청년층이 표준 철자법에 따라 대문자와 구두법의 규칙을 잘 지킨다는 점이다.<sup>7</sup> Ling(2005)에 의하면 문자메시지에서 약어의 비율은 단지 6% 정도로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지만 성별과 연령에 따라 민감한 차이가 있었다. 약어의 사용은 10대와 젊은 세대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줄어들었다. 가령 13~15세 여성 중에서 20% 정도가 약어를 사용하며, 35~44세 여성 그룹에서는 단지 3.5%만이 약어를 사용하였다. 같은 연령대라도 남성보다 여성이 약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10대는 장년층과 비교하여 방언의 사용에 적극적이었다.

Baron(2008)에서는 문자메시지의 언어적 특성을 이모티콘과 약어의 빈번한 활용, 구두법의 파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관습의 파괴보다 표준적인 표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약어의 사용이 그다지 높지 않은 비율이라도 비표준적 용법은 눈에 띄이기 마련이다. Ling의 연구 결과처럼 문자메시지 이용자들은 정상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비표준적 용법이 눈에 띄이기 때문에 대중들은 문

<sup>6</sup> Ling(2005)의 연구는 2002년 5월 노르웨이 사람들의 문자메시지를 수집한 후에 무작위로 추출하여 코퍼스를 구축하고 분석하여 얻은 연구결과이다. 연구에 활용된 샘플은 총 882건의 문자메시지로서 2002년 전체 응답자의 23%에 해당하는 463명의 문자메시지에서 얻어낸 무작위 샘플이다.

<sup>7</sup> 이 연구에서 Ling은 문자메시지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언어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전체 메시지 가운데 2/3 이상이 단문으로 이루어진 간결성을 띤다. 둘째, 전체 메시지 가운데 82%에서 대문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의 비표준적 철자법이 관찰되었다. 셋째, 일반적으로 첫인사와 끝인사가 상식인 서간체의 양식을 거의 따르지 않는다. “Hi, John, J”와 같은 첫인사나 “Bye, xxx, Dave”와 같은 끝인사를 쓴 메시지는 10% 정도에 불과했다. 인사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한 글자나 이모티콘으로 간단하게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전체 문자메시지의 약 6%만이 약어를 사용했다.

자메시지가 규범을 파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 철자법을 따르는 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문자메시지가 규범의 파괴인지, 경제적 언어의 사용일 뿐인지 Ling의 분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Crystal(2008)에서는 문자메시지의 기능을 사교와 정보 제공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사교적 기능에는 메시지를 통하여 느낄 수 있는 단순한 재미나 오락도 포함된다. 주목할 점은 문자메시지의 쓰임이 사교적 기능이나 정보 제공의 기능이나에 따라서 표기의 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만약 정보를 제공하는 메시지라면 휴대전화의 액정화면이라는 한정된 공간일지라도 사교적 메시지에 비하여 철자법이 상당히 정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어 문자메시지 자료의 수집 방법과 양적 분석을 통해 한국어 메시지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 3. 자료의 수집 방법과 양적 분석

문자메시지가 보편적인 통신수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의 연구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된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구하기는 어렵다. 사적인 대화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할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자료를 입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다(Crystal 2008). 발신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메시지들을 활용하거나 자료를 수집한 방법을 밝히지 않는다면 비윤리적인 연구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언어학적 연구를 하려면 발신자의 세대와 성별,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발신자에 대한 조사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확인하기 어려운 민감한 부분도 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사람들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저장해 두지 않는다. 휴대전화의 저장 공간이 충분하더라도 사소한 메시지들을 장기간 보관하지는 않는다. 보관하더라도 사적이고 은밀한 부분을 걸러내지 않고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연구자가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한 메시지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sup>8</sup>

한국어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단계이며 이에 대한 자료와 코퍼스도 찾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남녀 대학생들의 문자메시지 129건(총 182문장)을 수집하고 이들의 문자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언어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언론의 보도나 다른 연구에서 인용된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발신된 문자메시지를

<sup>8</sup> 본 연구에서도 배포한 설문지의 4/5 정도는 회수하지 못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자세히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보자들이 자신의 메시지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에 협조적인 패널리스트를 선정하여 중단 연구를 수행하거나 직접 메시지를 수집하는 대신 가능한 출력형들 가운데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어떠한 어형을 선호하는지 객관식으로 선택하는 설문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수집하였으므로 적어도 20대 대학생의 문자메시지 특성과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된다.

### 3.1 메시지의 수집 방법

연구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초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간단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제보자의 성별과 출생연도, 거주지를 파악하고 실제로 발신된 문자메시지를 수집하였다. 수신한 메시지는 제외하고 제보자가 발신한 메시지만을 필사하게 하였으며 철자법과 띄어쓰기를 고치지 말고 그대로 옮겨 적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제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출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정보는 삭제하거나 ‘○○’으로 적도록 배려하였다.

#### (1) 제보자 인적 사항과 발신 메시지 건수

제보자	연령	거주지	학력	발신 메시지 건수 (문장수)
남1	21세	서울	대학 재학	15건 (18개)
남2	21세	경기	대학 재학	6건 (17개)
남3	22세	경기	대학 재학	9건 (10개)
남4	21세	서울	대학 재학	11건 (11개)
남5	23세	서울	대학 재학	19건 (24개)
여1	22세	서울	대학 재학	11건 (16개)
여2	22세	서울	대학 재학	9건 (12개)
여3	21세	서울	대학 재학	9건 (16개)
여4	24세	경기	대학 졸업	20건 (25개)
여5	24세	서울	대학원 재학	20건 (33개)
합계			129건 (18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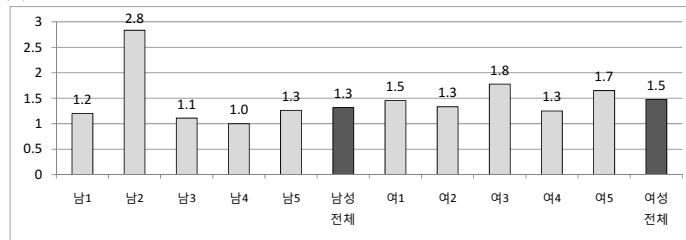
남녀 각각 5명, 총 10명의 제보자로부터 총 129건, 1인당 평균 12.9건의 메시지를 수집하였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메시지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 제보자들이 설문지에 옮겨 적은 메시지를 받았으므로 광고와 같은 스팸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걸러졌으며, 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나 선후배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메시지의 양은 개인별,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개인별로는 최대 20건(여4, 여5)부터 최소 6건(남2)의 메시지를 수집하였다. 남성으로부터는 총 60건, 1인당 12건의 메시지를, 여성으로부터는 총 69건, 1인당 13.8건의 메시지를 수집하였다.

### 3.2 메시지의 양적 분석

#### 3.2.1 메시지의 길이

개인별로 수집된 메시지의 양이 다르므로 각각의 메시지와 문장에 포함된 음절과 자모 개수의 평균을 구하였다. 음절의 개수를 계산할 때 ‘ㅋㅋ’나 ‘ㅎㅎ’와 같은 표기는 본래 ‘크크, 하하’와 같은 음절을 표기하기 위한 표현이므로 하나의 음절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ㄷㄷ’, ‘ㄱㄱ’과 같은 이모티콘(emoticon)과 ‘?, !, ..., ~’와 같은 문장부호는 음성언어와 관련된 표기가 아니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자모의 개수에는 이모티콘과 문장부호까지 포함시켜 평균을 구하였다. 메시지 한 건에 포함된 문장의 평균 개수는 다음과 같았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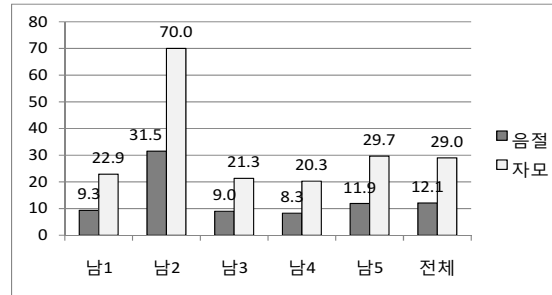
#### (2) 메시지 한 건에 포함된 문장의 평균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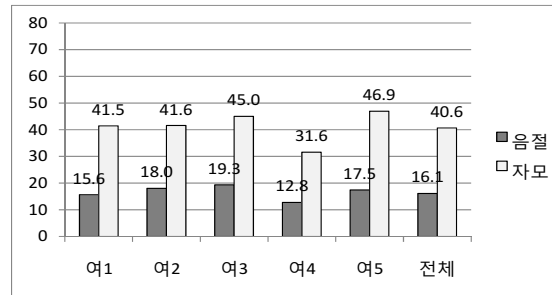
10명의 제보자 가운데 ‘남2’의 평균(2.8개)이 가장 높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남성(1.3개)에 비하여 여성(1.5개)의 평균이 더 높았다. 여성들의 메시지에 포함된 문장의 수가 남성보다 많은 편이므로 여성들의 메시지에 포함된 음절이나 자모의 개수도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sup>9</sup> 문자메시지에서는 주어는 물론 서술어가 자주 생략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결의 어미가 포함된 서술어를 기준으로 문장을 구분하되, 문맥상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도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번호 바꿨어요 저장해주세요”와 같이 서술어가 온전한 메시지는 서술어와 종결어미를 고려하여 2개의 문장으로 계산하고, “나 조금늦을거같아 한20분정도”와 같은 메시지에서는 “한20분정도” 다음에 문맥상 ‘늦겠다’라는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두 문장으로 처리하였다.

(3) a. 메시지 한 건에 포함된 음절과 자모의 개수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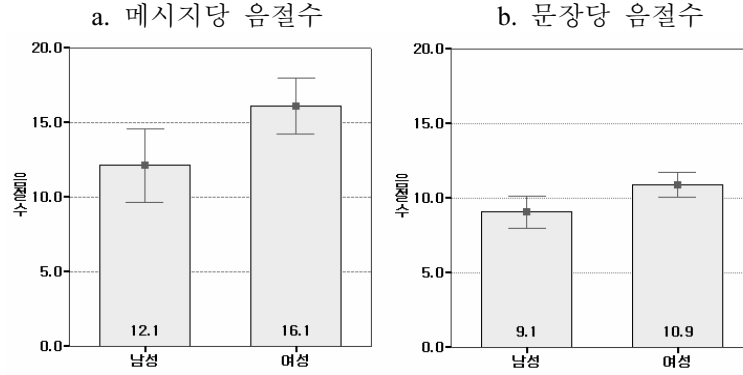
b. 메시지 한 건에 포함된 음절과 자모의 개수 (여성)



제보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메시지가 남성들의 메시지보다 많은 음절과 자모를 포함하고 있었다. 남성들의 메시지 한 건에는 평균 12.1개의 음절과 29개의 자모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여성들의 메시지 한 건에는 평균 16.1개의 음절과 40.6개의 자모가 포함되어 있었다. 건당 31.5개의 음절과 70개의 자모가 포함된 ‘남2’의 메시지는 다른 남성 제보자들에 비하여 훨씬 긴 편이었지만 나머지 남성 제보자들의 메시지는 대체로 10개 이하의 음절과 30개 이하의 자모를 포함하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여성 제보자들의 메시지는 남성보다 음절 4개, 자모 10개 정도 길었다.

메시지를 문장 단위로 나누어 음절과 자모를 분석한 결과, 메시지뿐만 아니라 각각의 문장에 포함된 음절과 자모의 평균 개수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메시지는 남성보다 더 많은 문장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문장의 길이도 긴 편이었다.

## (4) 평균 음절 개수 (오차 막대는 95% 신뢰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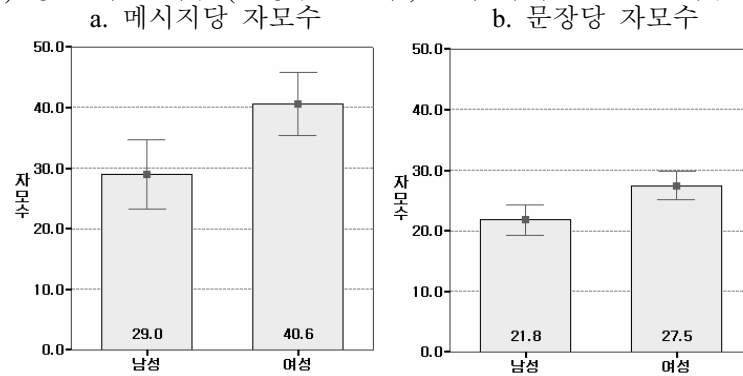


## (5) 성별 음절 개수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비교 대상	자유도	t값	p값	검정 결과
메시지당 음절 개수	127	-2.585	0.011(<0.05)	유의미
문장당 음절 개수	180	-2.675	0.008(<0.05)	유의미

(4)의 도표와 (5)의 표는 하나의 메시지와 문장에 포함된 음절의 평균 개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 메시지와 문장당 남녀 평균 음절 개수의 차이는 95% 신뢰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6) 평균 자모 개수 (문장부호 포함, 오차 막대는 95% 신뢰구간)



## (7) 성별 자모 개수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비교 대상	자유도	t값	p값	검정 결과
메시지당 음절 개수	127	-2.986	0.003(<0.05)	유의미
문장당 음절 개수	180	-3.313	0.001(<0.05)	유의미

하나의 메시지와 문장에 포함된 자모의 개수 역시 음절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6)의 도표와 (7)의 표는 하나의 메시지와 문장에 포함된 자모의 평균 개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음절과 동일한 방법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 메시지와 문장당 남녀 평균 자모 개수의 차이는 95%의 신뢰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성의 메시지가 남성보다 길다는 결과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관찰되었다. Ling(2005)에 의하면 노르웨이에서도 여성의 문자메시지가 더 길다. 메시지당 단어의 개수를 합하여 평균을 구한 결과 남성의 메시지는 5.4개의 단어로 구성된 반면 여성은 메시지당 6.95개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남녀 평균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확률은 0.001로서 95%의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다. Ling(2005)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복잡한 메시지, 그리고 인사말과 작별 인사를 자주 사용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남성의 문자메시지에서 단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75%였지만 여성의 메시지에서는 60%만 단문이였으며 특히 16-19세 사이의 연령에서는 이 차이가 뚜렷하였다. 이 연령층의 소녀들이 보낸 메시지 가운데 48%만이 단문이였지만 소년들의 메시지에서 단문 비율은 85%에 육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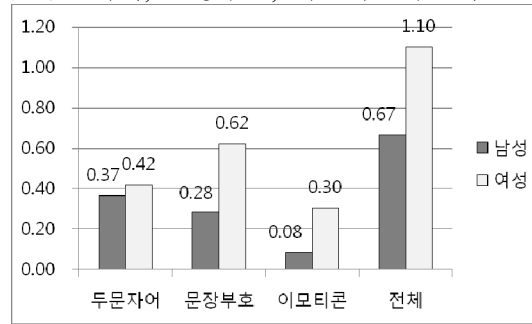
영국 캠브리지 남부 지역의 15-16세 사이 남녀 5명을 조사한 Grinter and Eldridge(2003)에서도 10대 남녀 문자메시지의 길이 차이는 분명하다. 남성의 메시지는 평균 55개의 문자로 구성된 반면 여성 메시지의 평균은 80개였다. 즉 영어를 사용하는 10대들도 여성의 메시지가 더 길었다. 핀란드어의 문자메시지를 연구한 Kasesniemi and Rautiainen(2002)에서도 여성의 메시지가 남성보다 길다고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긴 메시지를 작성하는 현상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노르웨이어, 핀란드어와 같은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남녀 메시지의 차이로서 살펴볼 사항이 하나 더 있다. ‘ㅋㅋ, ㅎㅎ, ㅇㅇ’과 같은 두문자어 표현, 문장부호(?, !, ..., ~), 이모티콘(ㄱㄱ, ㅠㅠ)이 등장하는 빈도와 비율이다. 남성의 메시지에 포함된 총 80개의 문장들 가운데 두문자어는 22개의 문장에서, 문장부호는 17개의 문장에서, 이모티콘은 5개의 문장에서 관찰되었다. 세 가지 표기법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등장하는 메시지와 문장은 각각 35개와 40개이었다. 평균을 구하면 메시지당 0.67번씩 두문자어, 문장부호, 이모티콘이 포함된 문장이 나타나는 셈이다. 반면 여성의 메시지에서도 이러한 표현들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성보다 높았다. 여성의 69가지 메시지에 포함된 총 102개의 문장들

가운데 두문자어는 29개의 문장에서, 부호는 43개의 문장에서, 이모티콘은 21개의 문장에서 관찰되었다. 세 가지 표기법 가운데 한 가지라도 등장하는 메시지와 문장은 각각 57개와 76개이었다. 평균을 구하면 메시지당 1.1번씩 두문자어, 문장부호, 이모티콘이 포함된 문장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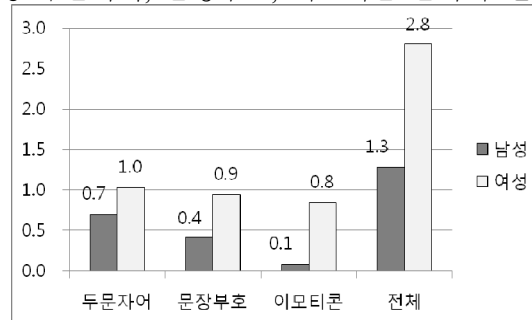
두문자어, 문장부호, 이모티콘이 사용되는 문장의 빈도를 구하여 성별에 따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전반적으로 세 가지 표기법이 사용된 문장들은 남성의 메시지보다 여성의 메시지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특히 문장부호는 2배 이상, 이모티콘은 3.5배 이상의 빈도로 관찰되었다.

(8) 메시지당 두문자어, 문장부호, 이모티콘이 포함된 문장의 빈도



두문자어, 문장부호, 이모티콘으로 사용된 문자의 개수를 분석할 경우 남녀의 차이는 더 커졌다. 특히 이모티콘 문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8배나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남성의 메시지에서 두문자어, 문장부호, 이모티콘으로 사용된 문자가 건당 1.3개였지만 여성의 메시지에서는 건당 2.8개였다. 이 세 가지 표기법에 대하여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약 2.2배의 문자를 사용하였다.

(9) 메시지당 두문자어, 문장부호, 이모티콘 문자의 빈도



여성이 남성보다 이모티콘이나 문장부호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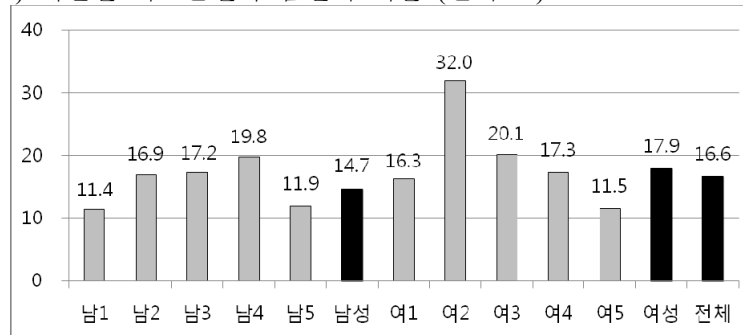
역시 다른 언어의 문자메시지에서도 관찰된다. Ling(2005)에 의하면 노르웨이어에서도 여성이 약어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문자메시지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Waseleki(2006)에서는 인터넷의 통신언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느낀표를 자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요컨대 성별 메시지를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메시지는 남성보다 길었다. 따라서 여성의 메시지 한 건에 포함된 문장, 음절, 자모의 수가 남성의 메시지보다 많았다. 문장 단위로 비교를 해도 여성의 문장은 남성의 메시지에 포함된 문장들보다 길었다. 여성의 문장에 포함된 음절과 자모의 평균 개수는 남성의 문장에 포함된 평균 개수보다 많았다. 결론적으로 메시지와 문장을 단위로 측정한 음절과 자모의 개수는 여성의 평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모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또한 여성은 두문자어, 문장부호, 이모티콘과 같은 특수한 표기법을 남성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sup>10</sup>

### 3.2.2 비표준적 철자의 비율

비표준적 철자법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도 음절 단위로 측정하였다. ‘글치’(그렇지)와 같은 비표준적 준말, ‘알바’(아르바이트)와 같은 약어, ‘ㅋㅋ, ㅎㅎ’(크크, 하하)와 같은 두문자어와 이모티콘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되, 이모티콘은 하나의 부호를 하나의 음절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ㄷㄷ’는 2음절로, ‘>.<’는 3음절로 계산하였다. 다만 ‘근데’(그런데)나 ‘내거’(내 것)와 같이 표준철자법에서도 허용된 준말은 제외하였으며 띄어쓰기는 고려하지 않았다.

(10) 개인별 비표준철자 음절의 비율 (단위: %)



전체적으로 비표준적 철자가 포함된 음절의 비율은 16.6%로서 예

<sup>10</sup> Ling(2005)에 의하면 노르웨이어 문자메시지에서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철자법 규범은 여성이 남성보다 잘 지켰다. 따라서 두문자어와 이모티콘과 같은 특이한 표기를 많이 쓰는 것도 여성이며, 철자법에 더 민감한 것도 여성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여러 언어를 살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

상보다 낮은 편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나머지 83.4%의 음절은 철자법 규범을 따르고 있었다. 메시지 한 건의 평균 음절수가 14.3개인데 이 가운데 2.4음절 정도가 비표준적 음절인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문자메시지에서 철자법의 파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일반적인 텍스트의 철자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세간의 인상적인 평가와 거리가 있었다.<sup>11</sup>

영국 카디프 대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연구한 Thurlow and Brown(2003)에서는 인터넷 메신저와 문자메시지의 약어 사용 비율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IRC 온라인 채팅'과 'ICQ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에서 약어는 조사대상의 82%에서 나타났다. 주목할 사항은 여성은 89%가, 남성은 57%가 온라인에서 약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어의 사용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조사했을 때는 상황은 조금 달랐다. 전체 문자메시지에서 약어가 사용된 비율은 18.75%로서 대중들이 예상하는 '언어의 파괴'나 '철자법 붕괴'와는 거리가 멀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 문자메시지에서 사용되는 비표준적 철자의 비율 역시 일반적 인식과는 달랐다. 또한 Ling(2005)에 의하면 노르웨이어 문자메시지 연구에서도 비표준적 철자를 가진 약어의 비율은 이모티콘을 포함하여 전체의 6%에 지나지 않았다.

이모티콘과 두문자어의 사용과 달리 비표준적 철자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최대 32%(여2)로부터 최소 11.4%(남1)까지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남성(14.7%)과 여성(17.9%)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메시지의 평균 음절수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남성은 12.1음절로 구성된 메시지 가운데 1.8음절 정도, 여성은 16.1음절로 구성된 메시지 가운데 2.9음절 정도에 비표준적 철자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비표준적 철자나 약어의 사용은 메시지의 용도나 메시지를 수신하는 상대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다(Crystal 2008). 따라서 발신자의 성별만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 4. 문자메시지의 표기와 특성

본 장에서는 한국어의 문자메시지에 나타나는 표기법의 언어학적

<sup>11</sup> 최근에는 수위가 낮아진 편이지만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한국 언론의 태도를 살펴보면 “우리말 훼손”이나 “한글 파괴”와 같이 자극적인 단어로 문자메시지의 비표준적 철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 문자메시지에 대한 우려와 비난은 영미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Crystal(2008: 9)에서는 문자메시지를 혐오하는 가장 극단적인 관점으로서 영국의 방송인 John Humphrys가 2007년 9월 28일 Daily Mail에 실은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의 제목은 “나는 문자메시지를 싫어한다: 문자메시지가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파괴하는가”로서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800년 전에 장기스칸이 그의 이웃 나라들을 약탈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를 해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구두법을 노략질하고, 야만적인 문장을 사용하며, 우리의 어휘를 파괴하는 언어 파괴자들이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http://www.dailymail.co.uk/pages/live/articles/news/news.html?in\_article\_id=483511&in\_page\_id=1770]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문자 메시지를 분석한 사례가 거의 없었으므로 Crystal(2008)의 문자메시지 분류 기준에 따라 한국어 메시지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Crystal(2008)에서는 영어 문자메시지의 특징적 표기법을 6가지 유형(그림문자와 표의문자, 두문자어, 문자 생략, 비표준적 철자, 단축어, 문자메시지만의 특이한 용법)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메시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5가지로만 분류하였다.

#### 4.1 그림문자와 표의문자

대상이나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 시각적인 모양과 그림이 사용되는 문자를 그림문자(pictograms, pictographs)라고 하는데 이모티콘은 일종의 그림문자라 할 수 있다. 언어보편적으로 복잡한 기호가 동원되는 도상적인 문자메시지는 흔하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휴대전화에는 복잡한 이모티콘이 이미 저장되어 있으므로 기호와 문자를 조합하여 복잡한 이모티콘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11a)는 본 연구에서 남·여 대학생들로부터 수집한 문자메시지 가운데 발견되는 이모티콘이며 (11b)는 영어의 메시지에서 자주 관찰되는 이모티콘이다.

##### (11) a. 한국어 문자메시지의 이모티콘

OTL	좌절	TT	TT	TT	TT	TT	눈물, 울상
^^	**^^*	웃음	——^	—.—;	——;		긴장
—TT—	우울	ㄱ—					고민
>.<	괴로움	○^○	○○;				놀람

##### b. 영어 문자메시지의 이모티콘

:~)	웃음	;~)	웁크
:~@	고함	@(--'--'--	장미

얼굴의 표정을 표현한 경우 영어의 이모티콘(11b)은 얼굴의 방향을 돌린 반면 한국어의 이모티콘(11a)에서는 얼굴을 돌리지 않고 입을 수 있다. 또한 영어의 이모티콘에서는 감정을 주로 입의 모양(@, ), ( )으로 표현한 반면 한국의 이모티콘에서는 감정을 주로 눈의 모양(^^, >.<, \*\*, TT, ○○)으로 표현하고 있다.

강옥미(2010)에서는 동양과 서양 이모티콘의 차이에 원인이 되는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소개하였다. 첫째, 상대의 감정을 읽을 때 서양인은 주로 입을 보지만 중국인과 일본인은 주로 눈을 읽는다. 둘째, 서양인은 웃을 때 입을 많이 벌리고 입꼬리를 과장하여 올리지만 동양인은 얌전하게 미소를 짓는다. 셋째, 동양인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미소를 지어 자신의 감정을 위장한다. 따라서 진실한 감정을 파악하려면 눈이나 눈 주변 근육의 움직임 읽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한다면 한국어의 이모티콘이 주로 눈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영어의 이모티콘이 주로 입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까닭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의 그림문자는 대부분 얼굴의 표정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 사람이 바닥에 쓰러진 모습을 도상적으로 표현한 ‘OTL’과 같은 표현은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 \*, >’ 등의 특수한 부호를 사용하려면 자판을 바꾸어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문자메시지에서는 이모티콘이 통신언어만큼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다. 한편으로 자판을 바꾸지 않고도 쓸 수 있는 ‘ㄷㄷ’와 ‘ㄲㄲ’의 빈도가 높았으며 ‘ㅡ(으), ㅇ, ㅅ, ㄱ’과 같이 한글 자모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이 선호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3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모티콘의 이용 빈도수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점이다.

(12) 이모티콘의 출현 빈도

이모티콘의 종류	남성	여성
^^ (웃는 얼굴)	0	7
ㄷㄷ ㄲㄲ ㄲㄲ ㄲㄲ ㄲㄲ (우는 얼굴)	1	8
ㅡㄲㅡ ㅡㅡ ㅡㅡ; (긴장하거나 우울한 얼굴)	4	6

(12)에서 남녀 총 129건(남성 60건, 여성 69건)의 문자메시지 중에서 이모티콘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빈도가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웃는 얼굴과 우는 얼굴은 남성의 문자메시지에서 거의 찾기 어려웠다. 긴장한 얼굴 표정은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남성의 4건은 모두 한 사람(남5)의 메시지에서 관찰되었다. 즉 여성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총 6건이 관찰된 반면, 남성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습관으로부터 기록된 결과이다. 이모티콘의 사용에 대한 성별 차이는 감정의 표현에 적극적인 여성의 성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Ling(2005)에서는 10대의 메시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긴 문자메시지를 작성했으며 특히 감정과 관련된 요소를 대화 속에 많이 포함시키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영어 메시지에서 관찰되는 현저한 특징은 하나의 문자나 숫자가 단어의 전체나 일부분을 표기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이다. 숫자, 부호, 그리고 x와 z처럼 동작이나 소리를 표현하는 특수한 문자가 사용된다. 이러한 문자를 표의문자(logograms, logographs)라고 하는데, 영어의 메시지에서 표의문자는 다음의 예처럼 단독으로 혹은 조합되어 사용된다.

(13)	<i>b4</i>	before	@oms	atoms
	<i>2day</i>	today	xxx	‘키스’
	<i>ooo</i> <sup>12</sup>	hug	zzz	‘코고는 소리’ 표현

보통 문자메시지에서 표의문자는 그림문자와는 차원이 다르다.

<sup>12</sup> 상대방을 안을 때 두 팔이 둥그렇게 포개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단어 @om(atom)에서 @과 곱함을 의미하는 이모티콘 ‘:-@’의 @은 같은 부호이지만 기능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발음과 관련된 부호이지만 후자는 모양과 관련된 부호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13)의 예들이 반드시 표의문자 혹은 그림문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문자메시지와 고대 이집트의 문자에는 공통적으로 ‘리버스’(Rebus)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리버스’란 완전히 그림으로만 구성된 메시지에서 그림으로 표기된 어휘의 의미는 버리고 발음만을 이용하는 표기법이다. 예를 들어 리버스에서 ‘벌을 그린 그림’은 그림만을 본다면 영어의 bee(벌)가 될 수 있지만 그림을 보고 소리를 연상한다면 be(be 동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한국어 문자메시지에서는 ‘b4 (before), 2day (today), gr8 db8 (great debate)’와 같이 숫자와 문자를 조합하는 표기법을<sup>13</sup> 찾을 수 없었다. 숫자를 이용하는 용법이 없었던 까닭은 한글 자판을 숫자 자판으로 전환하는 불편함과 한글 자판의 특성과 관련된 것 같다. 한국어나 영어에서 숫자를 사용할 경우 2-4개의 자모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은 차이가 없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한글 자판은 로마 자판보다 입력이 용이하기 때문에 굳이 숫자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b4의 ‘4’ 대신 ‘fore’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③(def), ⑥(mno), ⑦(pqrs), ③(def) 키를 각각 3번, 3번, 3번, 2번, 총 11번 눌러야 한다. 따라서 숫자로 자판을 바꾸어 4를 입력하는 것이 편리하다. 반면 한국에서는 휴대전화의 기종마다 차이가 있으나 서너 번만 누르면 숫자의 한자음을 입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휴대전화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천지인 한글 자판’에서는 ⑥(ㄱ), ①(ㅣ), ②(·) 키를 한 번씩 총 3번을, ‘나랏글 한글 자판’에서는 ⑦(ㄱ), ③(ㅣ) 키를 한 번씩 총 2번만 누르면 ‘4’의 독음 [사]를 입력할 수 있다.<sup>14</sup> 따라서 한글을 입력하다가 번거롭게 숫자로 자판을 바꾸어 ‘감사’와 같은 단어를 ‘감4’로 표기할 필요는 없다.

<sup>13</sup> 영어에서는 이러한 용법이 number와 English의 혼성어인 ‘Ninglish’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Crystal 2008: 84). Ninglish는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로 적은 영문텍스트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한국어의 문자메시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표기법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이주희(2010: 8)에 의하면 통신언어에서는 ‘하2루’(하이루), ‘10C미’(열심히), ‘감4’(감사), ‘바2’(바이, bye)와 같이 숫자와 로마자를 섞은 표기법이 한국어에서도 관찰된다.

<sup>14</sup> 2010년 10월 21일 <디지털 타임스>의 “휴대폰 한글자판 표준화 급물살”이란 기사에 의하면 국내 휴대전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글자판 체계 가운데 삼성전자에서 채택하고 있는 ‘천지인’은 55%를, LG전자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랏글’은 20%를 점유하였다. 참고로 2011년 6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한글자판 배열 방식에 대하여 일반 휴대폰은 ‘천지인’ 자판을, 스마트폰은 ‘천지인, 나랏글, SKY’ 3가지 자판을 국가표준 방식으로 제정하였다.

## (14) 휴대전화의 영문 자판과 한글 자판

1 @	2 abc	3 def	1 	2 .	3 —	1 ㄱ	2 ㄴ	3 ㄷ
4 ghi	5 jkl	6 mno	4 ㄱㅋㄱ	5 ㄴㄴ	6 ㄷㅌㄷ	4 ㄹ	5 ㅇ	6 ㅈㅊ
7 pqrs	8 tuv	9 wxyz	7 ㅁㅂㅅ	8 ㅅㅅㅅㅅ	9 ㅈㅈㅈㅈ	7 ㅅ	8 ㅇ	9 —
* +	0 +	#	* ○	0 ○○	#	* 가획	0 ㅣ	# 병서
<영문자판>			<천지인 한글 자판>			<나랏글 한글 자판>		

즉 한글 문자메시지는 로마자로 작성된 문자메시지와 달리 문자체계의 특성상 숫자를 섞는 것이 오히려 번거롭기 때문에 숫자의 조합을 이용하는 용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한국어의 문자메시지에 사용된 모든 종류의 단어에 한글 자모가 숫자보다 선호되지는 않았다. 시간이나 화폐의 단위처럼 일반적으로 숫자를 표기하는 문맥에서는 ‘2주, 40분, 900원’처럼 숫자와 한글 자모를 함께 적는 표기법이 ‘오분, 오천원’과 같이 한글로만 적는 표기법보다 우세하였다. 한글에서 숫자로, 혹은 숫자에서 한글로 자판을 바꾸는 과정이 다소 번거롭지만 메시지에서 숫자로 표기되는 정보들이 중요하므로 수신자들이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결과인 것 같다.

## 4.2 두문자어(頭文字語)

문자메시지의 특성들 가운데 두 번째로 두드러진 것은 두문자어의 용법이다. 두문자어란 여러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서 만든 단어이다. 영어는 *NATO*, *BBC*와 같은 고유명사를 두자로써 표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때로 두문자어(acronym)로 불리기도 하는데 어떤 이들은 ‘나토’와 같이 하나의 단어로 발음하는 단어만 두문자어로 보고 ‘비비씨’와 같이 철자를 그대로 읽는 단어는 ‘알파벳 표기’(alphabetism)라고 부른다.

한국어의 문자메시지에서는 영어처럼 첫 자음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두문자어의 예가 많은 편은 아니다.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자모로 표기하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음절을 하나의 자모로 표기하는 두문자어가 관찰된다.

- (15) ○○ (응응, Yes)      ㄴㄴ (노노, No)  
      ㄷㄷ (덜덜)      ㅎㄷㄷ (후덜덜, ‘덜덜’의 강한 표현)  
      ㅋㅋ (크크)      ㅎㅎ (하하)  
      ㅋㅎ (크하)      ㄱㅅ (감사)  
      ㅅㅋ (축하 [추카])      ㅈㅅ (죄송)  
      ㅇㅋ (오케이, OK)

단음절어(No[노], 응)의 경우 의미의 분명한 전달을 위하여 ‘ㄴㄴ,

○○'와 같이 동일한 자모가 두 번 반복되었다. 특히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ㅋㅋ, ㅎㅎ, ㅋㅋ’와 같은 표현을 구어의 간투사처럼 단어나 음절 사이에 넣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었다. ‘ㄱㅅ(감사), ㄷㅋ(축하), ㅈㅅ(죄송)’ 등은 통신언어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예들이다(이정복 2009: 18-20). 그러나 한국어의 메시지에서는 영어의 *OMG*(Oh my god!)나 *LOL*(laughing out loud)과 같이 통사구를 표기하는 두문자어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국어 메시지에 나타나는 두문자어는 주로 2음절 이하의 단어에서만 사용된다. 이는 음성언어의 차이보다는 단어를 음절 단위로 모아 적는 한글 표기법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 한편 ‘남친(남자-친구), 여친(여자-친구), 강추(강력-추천), 정모(정기-모임)’와 같이 하나의 음절로 단어를 표기하는 두음절어가 통신언어는 물론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두음절어의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자모로만 단어를 표기하는 두문자어는 피하는 것 같다.

남성과 여성이 두문자어를 사용하는 빈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메시지에 포함된 총 80개의 문장 가운데 두문자어는 22개의 문장에서 관찰된 반면 여성의 메시지에 포함된 총 102개의 문장들 가운데 두문자어는 29개의 문장에서 관찰되었다. 한편의 메시지에 포함된 두문자어 음절의 개수는 남성이 0.7개, 여성이 약 1.0개이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두문자어를 자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 4.3 문자 생략

첫 글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를 생략하는 두문자어와 달리 단어의 중간을 생략하거나 끝부분의 문자를 탈락시켜서 단어를 짧게 만드는 현상을 문자 생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통 중간이 생략되는 현상을 축약(contraction)이라고 하고 끝부분을 생략하는 현상을 절단(clipping)이라고 한다. 자음이 모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에 따라 일반적으로 모음이 생략되지만 마지막 자음이 탈락되기도 하고 단어 내부의 중복자음이 단자음으로 줄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한국어 메시지에서는 ‘알바’(아르바이트)와 같이 일상적인 단어들은 물론 ‘짐’(지금), ‘넘’(너무)과 같이 구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약어들도 관찰되었다. 수집한 자료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지만 ‘쌤’(선생님)과 같은 약어는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구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문자메시지에 나타나는 문자 생략 현상들로서 탈락되는 음운론적 단위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 (16) a. ‘음절+음소’ 탈락  
           알바 (아르바이트)                   어케든 (어떻게든)  
           출책 (출석체크)  
       b. ‘음절’ 탈락  
           알서 (알아서)                   웨덤 (웨스턴덤)

집갈거?? (집에 갈거냐?)	투표율20퍼 (투표율 20퍼센트)
c. ‘음소’ 탈락	
강 (그냥)	그렇지(글치)
넌 (내일)	넌 (너무)
돈만있음 (돈만 있으면)	볼거고 (볼 것이고)
섬 (시험)	아시크림 (아이스크림)
엠티 (업데이트)	잼있네 (재미있네)
짐 (지금)	클스마스 (크리스마스)
터와 (튀어 와)	호극ㅠ (흑흑ㅠ)

위의 예들에서는 구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표현도 많이 관찰된다. 특히 음절이 탈락된 (16b)는 구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음소가 탈락되는 약어에서는 주로 모음만 탈락되거나 모음이 포함된 자음의 연쇄(CV, VC)가 탈락되었다. 따라서 자음만 홀로 탈락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Thurlow and Brown(2003)에 의하면 영어의 문자메시지에서는 *Thx(thanks)*처럼 자음군을 통해 모음 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약어가 일반적이다.

(17)	<i>bt</i>	but	<i>yr</i>	year
	<i>tmrw</i>	tomorrow	<i>hav</i>	have
	<i>thn</i>	then	<i>wil</i>	will

의미를 파악하려면 종류가 적어서 예측이 가능한 모음보다는 종류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려운 자음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자음의 비대칭적 탈락은 자음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정보이론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17)의 영어 약어와도 일치되는 현상이다(Crystal 2008:27).

#### 4.4 비표준적 철자

문자메시지 이용자는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철자를 쓰는 경향이 있다. 비표준적 철자가 표준 철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규범을 벗어난 철자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문자메시지 이용자들이 의식적으로 철자 체계를 조작한 결과이다. 원인은 다양하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자판을 누르는 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혹은 발음대로 적기 위하여 철자를 변형할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문자메시지에 사용된 비표준적 철자의 목록은 분명히 변별적 특징을 갖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이모티콘과 두문자어, 약어 역시 비표준적 철자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비표준적 철자는 이러한 부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철자법 규범에 어긋난 예들이다. 이모티콘, 두문자어, 약어를 제외한 비표준적 철자는 발음대로 적는 철자와 발음과 상관없는 철자로 분류할 수 있다. 아래의 어형들은 발음대로

적는 철자로서 구어의 다양한 음운현상이 반영되어 있다.<sup>15</sup>

- (18) a. 단모음화, 단모음 표기  
         가든 (가면)          공무언 (공무원)      되긋지 (되겠지)  
         모/머 (무엇)          보든 (보면)          조꼐다 (좋겠다)  
         바빠죽긋다 (바빠 죽겠다)      모르긋어 (모르겠어)  
         다음주부터인디 (다음주부터인데)
- b. 경음화  
         갈꺼야 (갈 거야, 갈 것이야)      갈꺼임 (갈 것임)  
         꺼 (거, 것)
- c. 연음화  
         마니 (많이)                  무러보면 (물어보면)  
         밥머꼬 (밥먹고)              시러시러 (싫어 싫어)  
         친해져써 (친해졌어)          해버려써 (해 버렸어)
- d. 모음의 변이  
         피곤허다 (피곤하다)          기둘리는중 (기다리는 중)  
         너두 (너도)                  잘가그라 (잘 가거라/가라)  
         볼려? (볼래?)                  수서루 (수서로)  
         버스타구가려구 (버스타고 가려고)
- e. 자음의 비음동화와 위치동화  
         끈났당 (끝났다)                  몬만남 (못 만남)  
         한번보등가 (한번 보든가)

(18a)는 단모음화를 겪는 어형들을 발음대로 적은 것들이다. 발음대로 메시지를 작성할 경우 철자법에는 어긋나지만 자판을 누르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다만 ‘되긋지’(되겠지)나 ‘모르긋어’(모르겠어)처럼 음운론적으로는 단모음화로 보기 어려운 예들도 있다. [예]가 [으]로 변하는 현상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아니라 단모음 자체의 변화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글 입력체계에서 [ㅡ]는 [개]보다 간단히 입력할 수 있으므로 음성언어와 상관없이 문자언어상 단순한 표기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어체나 지역방언 표기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미 인터넷 통신언어(채팅, 메신저 서비스)에서 방언은 대화의 재미나 친밀감 형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표기를 선호하는 경제적 현상인지 아니면 일부 방언

<sup>15</sup> 익명의 심사자는 (18)에 제시된 용례가 통신언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므로 굳이 문자메시지만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본 장에서 제시된 분석은 이 논문의 연구대상이었던 20대 남녀 학생들이 문자메시지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어떠한 음운 및 형태적인 변이형을 선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심사자의 의견처럼 문자메시지에서 보이는 현상은 기존의 통신언어에서 보는 현상과 상당 부분 중복되거나 유사한 유형일 수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에서 보이는 언어적 현상은 당연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통신언어라는 큰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이런 논의는 1장의 머리말에서 Crystal(2008)의 주장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는 새로운 매체와 통신방법이지만 문자메시지에서 발견된 특징이 언어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의 논의와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표현처럼 재미를 추구하며 친근함을 형성하기 위함인지는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sup>16</sup> 채팅과 달리 문자메시지는 대화가 짧고 비연속적이기 때문이다.

(18b)는 경음의 발음을 반영한 예들인데 ‘-르거야’나 ‘-르게’는 일반적인 텍스트에서도 ‘-르꺼야’와 ‘-르께’로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18a)의 단모음화는 구어에 가까우면서도 자판으로도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표기인 반면 (18b)의 경음은 구어에 가깝지만 자판으로 입력하는 방법은 평음보다 번거롭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비표준적 철자에 비하여 예가 많지 않다.

(18c)는 연음화를 반영한 비표준적 철자형들이다. 연음화를 반영하여 발음대로 표기할 경우 [ㅇ]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서 단모음화와 마찬가지로 자판을 누르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마니’( 많이)처럼 ‘ㅎ’이 탈락된 경우에는 [ㅎ]과 [ㅇ]을 모두 입력할 필요가 없어서 한결 손쉽게 입력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의 혼동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시러’(싫어)와 같은 표기는 자주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18d-e)는 각각 모음의 변이, 자음의 동화(비음동화, 위치동화)를 반영한 비표준적 철자들이다. 이러한 예들은 표준적 철자와 비교하여 자판 입력에 별다른 장점이 없으므로 순전히 발음대로 적는 표기법을 선호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판을 누르는 횟수를 줄여주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에서는 발음대로 입력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보등가’(보든가)와 같은 표기는 한국어에서 자음의 위치동화(치경음의 연구개음화)가 음운현상으로서 실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만약 음성언어에서 이러한 위치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표기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19) a.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았/었-’의 ‘ㅅ’표기 변형

갔나 (갸나)	들렀다 (들렀다)
뒀거든 (뒀거든)	뒀어 (뒀어)
바졌어요 (바뀌었어요)	보냈어 (보냈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잊어요 (있어요)
있음 (있음)	재밌을 (재밌을)

b. 특이한 비표준철자

끈났당 (끝났다)	몇시츄 (몇시쑤)
밈졌어 (밈졌어)	수업클나쓰데 (수업 끝났는데)
쓰자규 (쓰자구)	알쟁어 (알겠어)

c. 복수 특징의 조합

괜차노 (괜찮아)	뒀거든 (뒀거든)
-----------	-----------

<sup>16</sup> Trask(2010: 37)에 따르면 언어변화를 이끄는 요인들 가운데 ‘집단의 동질성’(Group identity)과 관련된 것들이 1960년대 이후로 언어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 등이 집단의 구성원임을 각인시키지만 가장 강력한 동질감을 부여하는 것은 언어이기 때문이다. 가령 영어의 문자메시지에 반영된 방언(Crystal 2008:49)이나 한국어의 문자메시지와 통신언어에서 볼 수 있는 방언은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뒀어 (뒀어)	어케 (어떻게 해)
땡기른 (당기면)	궁가 (그런가)

발음이 반영된 (18)과 달리 (19)는 발음과 상관없는 비표준적 철자들이다. (19a)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의 일부인 [쓰]을 [스]으로 표기한 예들이다. 휴대전화 자판에서 경음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키를 추가로 눌러야 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문자의 입력 횟수를 줄이려는 의도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뀌었어요’(바뀌었어), ‘보냈어요’(보냈어), ‘있어요’(있어)와 같은 단어는 본래 경음으로 발음되는 단어들이므로 메시지 작성자가 입력의 경제성을 발음을 반영하는 경향보다 우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보냈어요’(보냈어)와 ‘있어요’(있어)는 (18c)의 연음형 ‘친해져써’(친해졌어)와 비교되는 어형이다. 예를 들어 ‘있어요’는 문자메시지에서 ‘이써요’(연음)와 ‘있어요’(쓰의 변형)로 적을 수 있다. 두 가지 어형은 표준 철자형 ‘있어요’보다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이써요’에서는 [이]를 줄일 수 있으며 ‘있어요’에서는 [쓰] 대신 [스]를 입력하므로 역시 입력 횟수를 줄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쓰] 대신 [스]를 입력하는 용법과 [이]를 생략하고 연음으로 적는 용법이 동시에 적용된 ‘이서요’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서요’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써요]로 발음할 수 없는데, 발신자는 수신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이러한 표기법을 피하는 것 같다. ‘이서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메시지의 사용자들이 표준 철자법을 벗어나더라도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같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19b)의 어형들은 특이한데 언어유희를 위하여 비표준적 철자법을 일부로 적용하거나 오타로 인하여 잘못 입력된 어형들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입력의 경제성과는 거리가 먼 ‘끈났당’(끝났다), ‘쓰자규’(쓰자구)는 언어유희 효과를 고려한 것 같다. ‘클나쓴데’(끝났는데)와 ‘땃시쭈’(땃시쭈)에서는 경음이 격음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아마도 신속하게 입력하는 와중에 경음과 격음을 입력하는 방식에 혼동이 일어난 결과로 보인다.<sup>17</sup> ‘클나쓴데’(끝났는데)에서 실수로 ‘는’의 [ㄴ]이 탈락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격음의 표기도 오타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19c)는 복수의 요인이 동시에 반영된 예들이다. ‘괜차노’(괜찮아)에는 연음화와 모음의 변이가 반영되어 있으며, ‘땃거든’(땃거든), ‘땃어’(땃어)에는 단모음 표기의 선호([ㅐ]→[ㅏ])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의 변형([쓰]→[스])이 동시에 반영되었다. ‘어케, 땡기른, 궁가’는 특이한 어형으로서 발음만으로는 설명하기가

<sup>17</sup> 하지만 ‘땃시쭈’(땃시쭈)의 오기가 신속하게 입력하는 와중에 경음과 격음을 입력하는 방식에 혼동이 일어난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메시지를 발신한 사람의 의도적 변형인지는 불분명하다.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료에서는 [쓰]를 [츠]으로 변형시킨 사례를 더 확인할 수 없었으나, 필자가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은 항상 조금을 [조금]이 아니라 [쪼금]으로 적는 습관을 갖고 있다. 또한 익명의 심사자는 표기법의 일탈을 통한 일종의 ‘낯설게 하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어려우며 연음화, 단모음화, 자음의 위치동화 등이 혼재되어 있는 예들이다. 이들은 문자메시지의 비표준 철자들을 결코 하나의 규칙이나 원리만으로는 분석하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3.2.2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문자메시지 가운데 비표준적 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걱정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전체 메시지에서 철자법에 어긋나는 음절의 비율은 16.6%이었다. 이는 노르웨이어에서 관찰되는 비표준적 철자의 비율 6%(Ling 2005)보다 높지만 Thurlow and Brown(2003)이 영어권에서 조사한 18.75%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Thurlow와 Brown의 연구는 대학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양한 연령층을 조사하여 평균값을 제시한 Ling(2005)의 연구와 비교할 수 없다. 만약 Thurlow와 Brown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도 Ling처럼 여러 연령층을 조사했다면 비표준적 철자의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한국 대학생과 Thurlow and Brown(2003)에서 조사한 영국 대학생이 비표준적 철자를 사용하는 비율은 비슷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의 연령층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2001년 핀란드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장년층의 문자메시지는 대부분 정보와 관련된 것들이므로 단순한 재미를 위하여 혹은 습관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청년층과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Faulker and Culwin 2005). 정보를 얻거나 전달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라면 약어의 사용이나 비표준적 철자의 비율은 낮을 것이다. 또한 Faulker and Culwin(2005)에 의하면 런던대 공대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337건의 문자메시지에서 196건의 문자메시지는 일반적인 철자와 문법을 따르는 정상적인 것들이었으며 145개의 메시지에서는 철자의 변형과 특이한 구두법(!, ? 등)이 관찰되었다. Ling(2005)와 본고의 연구 방식처럼 이들의 자료를 단어나 음절 단위로 구분하여 비율을 측정하였다면 비문법적 철자의 표기의 비율은 높지 않았을 것이다.

#### 4.5 단축어

‘단축어’(shortenings)는 일종의 약어로서 단어의 구성요소 가운데 일부가 생략된 단어이다. 영어에서는 *exam(ination)*처럼 일반적으로 단어의 뒷부분이 생략되지만 *(tele)phone*처럼 앞부분에서도 일어나기도 한다. 생략 현상은 문자메시지에서도 자연스럽게 발달되었다. 만약 단어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단어의 길이를 줄일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0)	<i>gran</i>	grandmother	<i>uni</i>	university
	<i>bro</i>	brother	<i>hols</i>	holidays
	<i>min</i>	minutes		

‘칼퇴’(칼퇴근)를 제외한다면 한국어의 문자메시지에서는 영어의 예처럼 단어의 전반부나 후반부를 생략하는 단축어를 찾을 수

없었다. ‘알바’(아르바이트)나 ‘출책’(출석체크)과 같은 단어들이 관찰되었지만 이러한 단어들은 단어 내부의 음절과 음소가 생략된 어형들이므로 Crystal(2008)에서 설명한 단축어와 다르다.

그러나 한국어의 문자메시지에서는 단축어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대학생들은 ‘공대’(공과대학), ‘법대’(법과대학), ‘학관’(학생회관)와 같은 단어들을 구어에서도 자주 사용하므로 이러한 단어들이 문자메시지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학교’를 ‘○○대’로 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한다면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삭제된 단축어도 관찰될 것이다. 다만 한국어의 단축어들은 ‘항우연’(항공/우주/연구원)처럼 단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성분을 하나의 음절로 단축(항, 우, 연)하고 이를 결합(항우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영어에는 단어의 구성요소 가운데 일부를 생략하는 단축어 이외에도 각 단어의 첫 번째 문자를 연결하여 통사구를 표기하는 용법도 관찰된다. 다음에 제시된 영어의 예는 기본형인 *IMO*(in my opinion)로부터 파생된 표현들이다(Crystal 2008: 53). 이러한 용례들은 일종의 언어유희로서 전통적인 두문자어와는 다르다.

- (21) *IMHO* in my humble opinion  
*IMCO* in my considered opinion  
*IMHBCO* in my humble but correct opinion  
*IMNSHO* in my not so humble opinion

한국어의 문자메시지에서는 위와 같이 통사구나 문장 전체를 두문자어나 단축어로 사용하는 예를 찾을 수 없었다. 오래 전부터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란 표현이 유행하였으나 문자메시지보다는 통신언어에서 사용되는 약어이다. 이 외에도 ‘열공’(열심히 공부한다), ‘씩소’(씩은 미소), ‘안습’(안구에 습기차다), ‘완소남’(완전 소중한 남자), ‘따도남/녀’(따뜻한 도시 남자/여자), ‘차도남/녀’(차가운 도시 남자/여자), ‘넘사벽’(넘을수 없는 사차원의 벽)과 같은 표현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수집한 메시지들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관찰할 수 없었다. 물론 이러한 표현 가운데 일부는 구어에서 사용되므로 문자메시지에서 쓰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문장과 통사구 단위의 표현들이 한국어의 문자메시지에서도 사용되는지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어 문자메시지의 특징적 표기법을 소개하고 이러한 특징이 남녀 성별의 차이에 따라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필요한 경우 로마자로 표기되는 영어의 메시지와 비교하면서 한국어 문자메시지의 보편적 특징과 개별적 특징을 논의하였다. 많은 문자메시지 자료를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대학생 10명(남성 5명, 여성 5명)으로부터 총 129건(182 문장)의 메시지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어의 문자메시지를 영어의 메시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단 ‘그림문자, 두문자어, 문자생략, 비표준적 철자’ 이상 네 가지 용법은 한국어의 문자메시지에서도 관찰되었지만 ‘단축어’와 통사구 전체를 표현하는 어형은 관찰되지 않았다. 단축어나 문장을 표현하는 약어들은 일상적인 구어나 통신언어에서도 발견되므로 자료가 축적된다면 문자메시지에서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고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성별에 따라 남녀의 메시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모티콘을 포함한 그림문자, 두문자어, 문장부호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자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성별의 차이는 문자메시지의 길이에서도 관찰된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메시지가 남성의 메시지보다 길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성별에 따른 길이와 용법의 차이는 한국어에서만 관찰되는 특징이 아니라 여러 언어의 문자메시지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보편적 경향이다.

하지만 한국어와 영어의 문자메시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기법도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어의 메시지에서 관찰되는 이모티콘은 영어에 비하여 빈도가 낮고 종류도 적었다. ‘OTL’과 같은 특수한 예를 제외하면 모두 얼굴의 표정을 표현한 것들이었다. 영어와 달리 ‘^, \*’와 같은 부호보다는 한글 자모인 ‘ㅇ’이나 ‘ㅡ’(으)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이 선호되었다.

두문자어 역시 영어와 다른 방식으로 표기되었다. 단어를 하나의 자모로 표기하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 메시지에서 관찰되는 두문자어는 모두 음절을 하나의 자모로 적는 표기법을 따르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표기법은 음절단위로 자모를 모아 적는 한국어의 철자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코 통신언어나 문자메시지에서만 관찰되는 현상도 아니다. 동일한 음절이 반복되는 2음절 단어(응응, 덜덜, 크크, 하하)를 표기한 두문자어가 많았지만 ‘츄츄’(축하)나 ‘ㄱ사’(감사)와 같은 2음절 두문자어도 관찰되었다.

문자의 생략은 방식이 매우 다양했다. 이러한 표기법들은 구어의 발음을 반영한 것과 발음과 상관없는 것, 음절이 탈락한 것과 음소가 탈락한 것 등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모음만 생략되거나 ‘모음+자음, 자음+모음’이 생략되는 표기는 관찰되었지만 자음만 생략되는 표기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영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자음이 모음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이론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비표준적 철자의 표기도 다양하였다. 구어의 발음을 반영한 표기가 많았지만 발음과 상관이 없는 표기도 있었다. 특히 자판을 누르는 횟수를 줄이는 경제적 표기가 많았지만 입력의 경제성과 상관없이 언어적 유희나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동질감 혹은 색다른 표현을 하기 위한 용법도 관찰되었다. 따라서 입력의 효율성이나 시간의 절약과 같은 경제적 원리만으로는 모든 비표준적 철자법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20대 대학생들의 한국어 문자메시지에는 언어학적 보편성과 개별성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림문자나 두 문자어와 같은 표기법은 도상성이나 입력의 경제성과 같은 휴대전화, 즉 문자언어를 전달해 주는 매체의 특징으로부터 비롯된 반면, 음절단위의 두문자어를 사용하는 특징은 한국어 표기법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로마자와 한글의 입력방식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차이도 있다. 한국어에서는 *b4(before)*와 *2day(today)*처럼 영문과 숫자를 조합하는 표기가 관찰되지만 이것은 하나의 키로 주로 하나의 문자만 입력하는 한글의 입력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목할 점은 문자메시지에서 표준철자법에 어긋나는 표기가 자주 관찰되지만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의 일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메시지의 발신자가 수신자나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규범을 적용함을 암시한다.

한국어의 메시지에서 관찰되는 비표준적 철자의 비율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메시지를 분석해 본 결과 비표준적 철자가 포함된 음절의 비율은 16.6%인 반면 철자법을 따르는 음절의 비율은 83.4%였다. 적어도 양적 측면에서는 심각한 철자법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은 다소 과장된 견해이다.

### 참고문헌

- 강옥미. 2010. 정서는 어떻게 동·서양 표정 이모티콘에 반영되었는가. *기호학연구* 27, 243-267.
- 박철주. 2006. PC 통신언어 명사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교육* 119, 457-486.
- 송민규. 2007. *가상공간의 신어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시정곤. 2006. 사이버 언어의 조어법 연구. *한국어학* 31, 215-243.
- 신승용. 2005. 통신언어와 국어교육. *영남국어교육* 9, 12-26.
- 이정복. 2003. *인터넷 통신언어의 이해*. 월인.
- \_\_\_\_\_. 2005. 사회언어학으로 인터넷 통신언어 분석하기. *한국어학* 27, 37-79.
- \_\_\_\_\_. 2009. *인터넷 통신언어의 확산과 한국어 연구의 확대*. 소통.
- 이주희. 2010. 통신언어의 표기와 음운적 특성. *언어연구* 27.1, 1-18.
- 전병용. 2002. 통신언어의 음운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 대화방 언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1, 251-274.
- BARON, NAOMI. 2008. *Always On: Language in an Online and Mobile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 CRYSTAL, DAVID. 2006. *Language and the Internet*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8. *txtng, the gr8 db8*. Oxford University Press. (이주희·박선우 옮김. 2011. *문자메시지는 언어의 재앙일까? 진화일까? 알마*)
- DÖRING, NICOLA. 2002. 1 bread, sausage, 5 bags of apples I.L.Y.

- communicative functions of text messages (SMS), *Zeitschrift für Medienpsychologie* 14.3, 118-28.
- FAULKNE, KRISTINE and FINTAN CULWIN. 2005. When fingers do the talking: A study of text messages, *Interacting with Computers* 17, 167-185.
- GRINTER, REBECCA and MARGERY ELDRIDGE. 2001. y do tngrs luv 2 txt msg?, in *Proceedings of the 7th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Supported Cooperative Work (ECSCW)*, Bonn: Germany.
- \_\_\_\_\_. 2003. Wan2tlk?: Everyday text messaging, in *Proceedings of ACM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 (CHI 2003)*, 441-448.
- HÅRD AF SEGERSTAG, YLVA. 2002. *Use and Adaptation of the Written Language to the Condition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oteborg.
- KASESNIEMI, EIJA-LIISA and PIRJO RAUTIANEN. 2002. Mobile culture of children and teenagers in Finland. In James E. Katz and Mark Aakhus (eds.). *Perpetual Contact: Mobile Communication, Private Talk, Public Performance*, 170-1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G, RICH. 2005. The socio-linguistics of SMS: An analysis of SMS use by a random sample of Norwegians. In R. Ling and P. Pedersen (eds.). *Mobile Communications: Renegotiation of the Social Sphere*, 335-349. London: Springer.
- OKSMAN, VIRPI and JUSSI TURTIANEN. 2004. Mobile communication as a social stage: Meanings of mobile communication in everyday life among teenagers in Finland. *New Media and Society* June 2004, 319-339.
- SEBBA, MARK. 2007. *Spelling and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GG, CAROLINE. 2009. *A Corpus Linguistics Study of SMS Text Messag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irmingham.
- THURLOW, CRISPIN and ALEX BROWN. 2003. Generation Txt? The sociolinguistics of young people's text-messaging. *Discourse Analysis Online* 12 November 2003. [<http://www.shu.ac.uk/daol/articles/open/2002/003/thurlow2002003-01.html>]
- TRASK, LARRY. 2010. *Why Do Languages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SELESKI, CAROL. 2006. Gender and the use of exclamation point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n analysis of exclamations posted to two electronic discussion list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4, article 6. [<http://jcmc.indiana.edu/vol11/issue4/waseleski.html>]

박선우  
447-791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번지  
한신대학교 교양학부  
E-mail: sunwoopark@naver.com

received: November, 11, 2011  
revised: March 28, 2012  
accepted: April 25, 2012